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12/22℃ 목포 12/21℃ 여수 15/22℃

단기 4342년 (음력 9월 10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07호 1판 2009년 10월 27일 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전남 환자 하루 800명

신종플루 대유행 조짐

백신 공급 차질 학교 등 초긴장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신종플루 환자 수가 급증하는 등 다시 유행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교육당국 등이 긴장된 상태로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백신 예방접종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6·8면〉

광주시의 경우 지난 21일 하루 발생 환자 수가 104명으로, 1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23일에는 199명이 신종플루 환자로 확진돼 하루 200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남도 역시 지난 21일 213명으로, 200명을 넘어선 뒤 26일 636명으로 3배 이상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달 10~20명, 이달 초 40~50명이던 하루 발생 환자 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광주·전남지역 1일 발병 환자가 1천명대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의 항바이러스제 투약 환자 수는 4천434명, 전남은 3천940명으로, 이중 60% 이상이 완치됐으며, 나머지는 치료중이다.

이처럼 신종플루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26일 전남대병원 등 신종플루 거점병원에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길게 줄을 서는 등 지역민들의 불안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시·도는 27일부터 전남대병원 등 신종플루 거점병원 등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예방백신 접종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방역요원 및 영유아·노인·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학생 및 군인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칠 예정이다. 광주시에는 지난 23일 270명 분의 백신이 처음으로 전달됐으며, 올해 말까지 의료·방역요원, 학생, 영유아, 임신부 순으로, 내년 1월 이후 노인 및 만성질환자들을 접종한다.

그러나 예방백신 부족으로 인해 제때 필요한 양만큼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백신을 요구했으나 백신이 크게 부족해 그때그때 내려준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치료거점병원에서조차 의료진보다 적은 백신이 전달돼 순차적으로 접종할 수 밖에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처럼 신종플루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 보건당국, 교육당국 등이 그 확산 속도 및 여파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책마련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26일 전국적으로 하루 신종플루 환자 수가 4천220명으로, 4천명을 넘어섰으며, 신종플루 의심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뒤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충청권 초등학생 2명과, 경기 북부의 중학생 1명, 영남권 거주 70대 여성 2명 등 5명이 사망했다.

또 전세계적인 신종플루 대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윤현석·최권일기자 chadol@

의료진 예방접종 신종 인플루엔자로 하룻새 5명의 환자가 숨진 26일 광주시 북구 광주병원(거점병원) 의료진이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전남 '교사 대란' 5대 재앙 온다

내년 학생수 기준 일률배치 714명 감축

① 벽지 50개학교 폐교 또는 통합
② 전공다른 '상치교사' 100명 증가
③ 초등교사 수업 주 7시간 증가
④ 신규채용 스톱·교사 노령화 가중
⑤ 법정 교원비율 70%이하로 추락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 정원 배정 방식 변경으로 내년에만 전남에서 714명의 교원(교사)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相馳) 교사 급증, 교사의 수업시수(시간)의 과도한 증가 및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가속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남도교육청과 도내 초·중·고교에 따르면 교과부가 내년부터 교원 정원 배정을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지역은 초등 290명, 중등(중·고교) 424명 등 714명의 교사가 줄어든다. 이는 전남 전체 교원 1만4천960명의 4.8%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에 따라 전남 초·중·고교의 학급수가 감축되고, 학급당 학생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나면 교육의 질은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교사 1인당 주 25시간 안팎의 수업시수가 최대 32시간까지 늘어나게 돼 수업 부담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 초등교사는 방과 후 학습 등을 맡은 사례도 적지않아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고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중학교는 전체 2천25학급의 4.9%인 100학급을, 고등학교는 1천476학급의 3.3%인 50학급을 줄여야 한다.

이로 인해 2006년 기준으로 87.9%까지 올라왔던 교원의 법정정원 비율은 2010년에 77.8%로 급감하고, 2012년이면 70%대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학생수가 30명 안팎이고, 교사수가 2~3명에 불과한 도서벽지 학교(51개교)의 교사수를 줄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대대적인 학교 통폐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소규모 도시벽지 학교의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목포, 여수, 나주, 광양, 순천 등 도내 5개 시지역의 학급당 학생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해당 지역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학교별로 1~3명의 교사를 감축해야만 총 정원 내에서 전남도내 전체 학교의 운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교사 부족에 따른 상치교사도 내년에만 1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밖에도 그동안 100%의 교원 법정 정원이 배치된 전남외고와 전남과학고, 전남체육고 등 특목고와 올해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한국항만물류고 등도 교원 정원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 '무늬만 특목고'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의 교원 정원 축소로 내년부터 신규 교사의 임용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젊은 교사의 신규 임용이 막히게 되면, 전남지역 교사의 급격한 노령화는 불가피하다. 전남도내 초등교사의 평균연령은 10월 현재 44세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전남지역의 한 고교 교장은 "전남에선 교사 1명이 2~3과목을 가르치는 게 당연할 정도로 교사수가 부족하다"면서 "여기서 교사를 더 줄인다면 낙후된 농산어촌의 교육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흑산홍어 사상 최대 풍어

中어선 불법 단속 효과…하루 위판액 5억 넘어

최근 흑산 홍어잡이 어민들이 흑산도 근해에서 상상할 수 없는 풍어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신안 흑산수협은 "26일 위판장에서 홍어잡이 어선 6척이 흑산도 근해에서 잡아온 흑산홍어 3천여 마리(12t)를 위판했으며, 위판액도 5억원을 훌쩍 넘는 사상 최대의 풍어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흑산수협 설립 이후 66년 만에 하루 최대 위판량으로 그동안 최대 위판량은 1천500마리였다.

홍어 가격은 8㎏ 이상(암컷) 상품 한 마리에 40만원대에 위판돼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슷하다.

올해들어 현재까지 흑산도 수협을 통해 위판된 홍어는 100t으로 전년 같은 기간 생산량 50t을 훌쩍 뛰어넘었다.

홍어잡이 선박 풍년호(선장 강택영·51)는 26일 하루동안 700마리(3t)를 잡아 지역 홍어잡이 선박중에서 최고 어획고를 올렸다. 흑산 홍어어장은 흑산도 서북방 40~50마일 해역에서 주로 형성된다.

흑산수협 박선순 유통사업팀장은 "홍어가 너무 많아 직원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9시간 동안 꼬박 위판을 했다"면서 "서해해경청의 중국어선 불법 어로단속 효과과 함께 홍어가 외해로 이동했다가 서식지로 돌아오는 시기에 주낙에 대량으로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흑산 홍어는 7척의 어선으로 매년 3만8천마리를 잡아 35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신안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26일 신안군 흑산수협 위판장이 흑산 홍어로 뒤덮여 '홍어 바다'를 이루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